‘20만 구독자’ 유튜브 스님에 매료

日 ‘다이구 화상의 1문1답’ 다양한 연령층 인기

박영빈 객원기자

최근 SNS와 유튜브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의 포교활동이 주목받는 가운데, 일본에서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님의 유튜브 채널이 화제다. 3월 19일 일본의 ‘아키타 사키가케 신보’ ‘마이도나 뉴스’ 등은 유튜브 채널 ‘다이구 화상의 1문1답’ 을 집중 조명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다이구 겐쇼 스님(大愚元勝, 48)은 아이치현(愛知県)의 유서 깊은 사찰인 후쿠곤지(福嚴寺) 31대 주지다. 후쿠곤지는 15세기 말에 창건된 조동종 사찰로, 지역신앙의 중심지로 이름 높다.

다이구 스님이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의 경력은 매우 다채롭다. 사찰의 후계자로 태어나 3살부터 불경과 종무를 익히기 시작했다. 이른 나이에 자의가 아닌 출가생활을 시작한 스님은 “결국 이대로 스님으로 살고 싶지 않아 절에서 도망쳐 방랑했다”고 말했다.

사찰 밖에서의 스님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32세에 창업, 불교를 이념으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이때 쌓인 부채 1억 엔을 5년 만에 모두 변제하는 등 실업가로서도의 실력도 상당하다. 현재 스님은 카라테 사범, 테라피스트, 사장, 교육자 등의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38세가 되어서야 다시 사찰로 돌아와 출가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스님은 자신이 쌓은 다양

아이치현 후쿠콘지 주지스님
말 못할 개인적 고민 돕고자
유튜브로 대중과 소통 나서
소년부터 노인까지 질문해와

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포교와 교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이구 스님은 1문1답이라는 콘텐츠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지금은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예전엔 한밤중이라도 고민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7~8년 전 어느 보살님이 ‘방황하는 딸로 가정이 붕괴 직전’ 이라며 상담을 요청한적 있었다”



1문 1답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구 스님. 사진출처=사키카케 신보

고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보살님의 설득으로 딸이 절에 찾아와 3자 대면을 하던 날, 그 딸은 내가 보는 앞에서 손목을 그어 자해했다. 너무나 충격이었다. 그때 ‘이 세상엔 남에게 말도 못하고 깊이 고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실감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고민 끝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 스님은 “재적사찰이 있다 해도, 가볍게 주지스님을 만나 상담을 하기는 어렵다. 또 스님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거기에서 익명이 가능한 유튜브를 생각해냈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가 가진 기능에 기대한 점도 있었다. “유튜브는 짧은 시간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가능성이 가득한 매체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현재는 80세부터 11세의 소년까지 질문을 해온다”고 스님은 전했다.

주위에 선전 없이 시작한 유튜브는 어느 순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스님은 “특별히 넓히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세상에 이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에서 채널을 구독해 놀랐다”며 웃어 보였다. 현재 스님의 유튜브 채널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다. 해외 구독자들 가운데 외국어로 스님의 영상에 자막을 달면서 세계 각국의 구독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도 있다.

스님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사찰은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이 기댈 수 있는 장소’로 지역사회 속에 뛰어 들어야 한다”며 더욱 다양하고 진지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티베트, 15세기 마애석불군 발견

동부 내륙서 대규모로… 진언 · 불경 암각도

동부티베트 산속에서 대규모 마애불이 발견됐다. 3월 20일, 중국의 ‘신화통신’과 ‘AFP 뉴스’ 등은 600년 넘게 숨어있던 마애불들을 특별 보도했다.

마애불이 발견된 곳은 동부티베트 내륙인 캄 지역, 쎄르쑬현(現 스촨성 간즈장족 자치주) 쩨다 지구에 소재한 산이다. 이번 발견은 마다사원의 제보로 이뤄졌다. 베이징 고궁박물원 티베트불교 문물연구소의 뤄원화 소장은 “2017년 연구소의 조사팀이 마다사원의 벽화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스님이 ‘산 위에 벽화와 동시대의 마애불들이 있다’ 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조사팀은 현지조사를 통해 대규모 암벽이 늘어선 산기슭에서 다양한 마애불들을 발견했다. 산기슭에서 시작한 마애불들은 거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조성됐다. 주로 불보살을 중심으로 조사상이나 불탑 등의 도상이 발견됐다. 마애불들은 대부분 음각선화로 새겨졌으며, 일부는 얕은 부조로 조성됐다. 마애불 외에 진언이나 불경을 암각한 것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발견으로 꼽히는 것은 불족석으로 추정되는 암각화와 고대 티베트 비문이다. “불족석은 높이 최대 2m로 이렇게 거대한 것은 티베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작례”라고 조사팀은 말했다. 특히 산 정상 부근의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된 고대 티베트 비문은 버터기름을 도포하는 티베트 특유의 풍화방지책으로 보존돼 있었다. 그러나 훼손이 심해 비문을 판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암벽에 새겨진 마애석불군의 일부. 사진출처=신화통신

뤄원화 소장은 “마다사원 측의 자료에는 사찰을 중창한 15세기에 중창을 기념해 마애불을 새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비문의 발견으로 훨씬 이전 시대부터 마애불이 조성됐을 것을 추정된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다사원의 빨댄 스님은 “불족석에 대해서는 사원의 창건주였던 빨댄따시 대사의 발자국이라는 전설이 있어 보존에 신경 쓰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선 찾아볼 수 없다는 말에 놀랐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호주 불광산사 ‘온라인법회’ 모범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준비
예불 · 강의 · 대중법회 선봬

호주 퍼스의 불광산사에서 보인 선견지명이 눈길을 끈다. 호주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온라인 법회를 시작, 소셜미디어 등으로 신행활동을 지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2일 호주 공영방송 SBS뉴스는 불광산사의 온라인 법회를 보도했다.



퍼스 불광산사에서 온라인 법회를 돕고있는 자원봉사자. 사진출처=SBS뉴스

호주 퍼스 불광산사는 호주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기 전인 2월에 산문 출입을 제한했다. 퍼스 불광산사의 주지 미아보 스님은 “폐쇄조치는 대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불광산사 대만 본산과 호주 불광산사 본사의 논의 끝에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우리는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사찰의 문 앞에 손세정제를 두고 모든 방문객의 체온을 검사할 수 있도록 체온계를 두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임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퍼스 불광산사의 좌선실에는 매주 수백 명의 불자들이 수행을 위해 찾았지만 현재는 오직 상주하는 스님들과 최소한의 자원봉사자들만이 남아있다.

불광산사의 대변인이자 자원봉사자인 그레이스 콜린스는 “스님들은 이미 사스(SARS)와 같은 감염병을 대처한 경험이 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악화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선행조치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퍼스 불광산사는 출입을 제한한 2월부터 법당에 깔려있던 좌복을 모두 치우고, 법당에 비치된 모든 법구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또한 산문에 노약자는 예불에 참석하지 말라는 요청과, 해외를 방문하고 돌아온 불자는 14일간 사찰에 방문을 금지한다는 대자보를 영어와 중국어로 게시했다.

불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자 대중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신행활동을 이어나갈 방법을 강구했다. 현재 퍼스 불광산사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법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아보 스님은 “매일 진행되는 조석예불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중계하고 있다. 이외에 진행되던 불교강의와 경전공부, 대중법회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녹화방송 공유 등을 통해 법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곧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퍼스 불교계는 약 4만여 명의 불자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봉행할 예정이었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英 가정집서 찾은 고대 금동불

TV골동품 프로그램 출품, 감정가 7억3000만원

영국 가정집에 잠들어있던 고대 금동불이 발견됐다. 3월 23일 영국 일간지 ‘메트로’는 TV 골동품 감정프로그램에 출품된 두 구의 불상에 대해 보도했다.

BBC가 방송하는 골동품 감정 프로그램인 ‘앤티크 로드쇼’는 1979년 시작돼 지금까지 인기를 끄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화제의 불상은 지난주 영국 웨일즈 국립식물원에서 중계된 화에 출품됐다. 소장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1920년까지 고미술상을 운영하셨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던 당시, 캘커타에서 구입한 진품으로 알고 있다”고 소장 경위를 밝혔다. 출품된 불상들은 두 점으로, 금동 따라보살상 한 점과 금동판에 부조로 새겨진 신장상이다. 따라보살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후기 인도 대승불교에서 널리 신앙된 보살이다.

불상의 감정을 맡은 아시아 미술 전문가 존 엑스포드는 “이 불상들은 티베트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보존상태가 완벽하다. 금박에 일부 탈락이 있고, 광배와 좌대에 탈락된 부분이 있지만, 12세기에 조성된 불상들이기에 이상할 것 없다. 또 보기 드물게 불상 전체에 상감된 보석들이 대부분 남아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화 7억 3천만원으로 책정된 금동 따라보살상. 사진출처=BBC

존 엑스포드는 금동부조신장상에 한화 7300만원의 감정가를, 금동 따라보살상에는 7억3000만원의 감정가를 책정했다. 존은 “이 불상은 영국역사로 따지면 노르만 정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들어졌다. 지금은 대략적인 가격일 뿐 7300만원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불상들”이라고 감정평을 내렸다.

김민재 객원기자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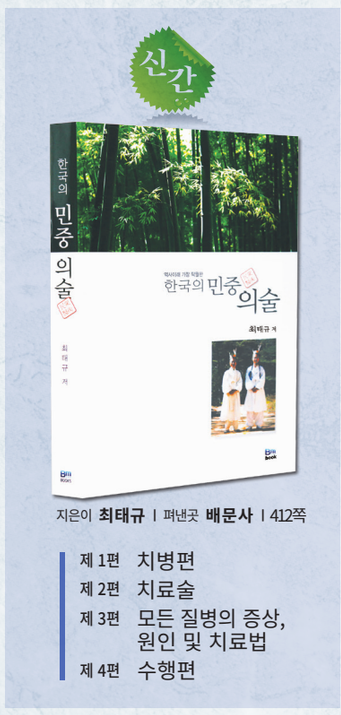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